胸痛의 形象醫學的 치료

오충환[1] · 강경화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한의학연구소, 1 : 오충환한의원

Chest Pain and Hyungsang Medicine

Chung Hwan Oh[1], Kyung Hwa Kang,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Oh Chung Hwan Oriental Clinic

A study is made on the chest pain in the perspective of Hyungsang medicine. The following are the conclusions produced by the examination on the clinical cases of chest pain. Excessive atmospheric influences (wind, rain, cold and summer heat) are the exogenous causes of chest pain. The endogenous causes are diet, dwelling, sexual life and emotions. Persons of bird type are attacked by the chest pain because of emotional depressions. Those of running animal type get sick of chest pain when wood checks earth. Those of turtle type are a afflicted with chest pain due to depression and stagnation of Ki. Those of fish type suffer from chest pain when the ministerial fire of the liver and kidney becomes hyperactive. Chest pain is causes by leakage of Jung for the Jung kwa person, by stagnation of Ki for the Ki kwa person, by flaming fire due to deficiency of Yim for the Shin kwa person and by failure of water and fire in complementing each other for the Hyul kwa person. Chest pain often occurs to persons with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 upward nose, big eyes, chapped lips, pronounced foot of nose, red or yellow complexion, frowning face and wrinkles on the nasal radix. Among the six meridian types, chest pain is often found in the persons of Yangmyung and Taeum meridians. Women suffer from chest pain more often than men because breast is a center of life to her.

Key words : chest pain, six meridian types, hyungsang medicine, atmospheric influences, emotional depressions

서 론

胸痛은 가슴의 一側 혹은 兩側에 痛이 나타나는 症狀[1]으로, 過度한 스트레스, 잘못된 飮食攝生과 環境汚染等으로 現代에서는 發病의 頻度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는 症狀이다.

韓醫學에서는 胸中痛[2], 心痛[3], 胸痞[4], 心腹痛[5], 胸痛[6], 心脾痛[7], 結胸[8] 및 胃脘痛[9]의 內容에서 胸痛의 症狀을 자주 볼 수 있다.

《黃帝內經·素問》의 〈藏氣法時論〉[10]에서 "心病者 胸中痛..."이라 하여 最初로 胸中痛에 대하여 言及하였고, 《黃帝內經·靈樞》의 〈五邪〉[11]에서는 "邪在心 卽病心痛"이라 하였고, 〈厥病〉[12]에서는 "眞心痛 手足靑至節 心痛甚 早發夕死 夕發早死"라 하였으며, 《傷寒論》[13]77條, 78條, 123條, 134條에서 胸中痛 및 結胸에 대하여 記述하였고, 이후 《金匱要略》[14]에서 처음으로 胸痞와 心痛을 하나의 構成篇으로 記述하여 처음으로 病因病理가 구체적으로 言及되었으며, 《東醫寶鑑》에서는 心痛과 胃脘痛 그리고 胸痞로 區分하여 詳述해 놓았다.

사람의 가슴은 呼吸하는 곳이고, 飮食이 通過하는 곳으로 調節機能이 한번 잘못되면 邪氣가 交代로 侵入하여 좋지 못한 徵兆가 나타난다[15]고 하였다.

胸痛을 일으키는 病因으로는 寒, 風冷의 內陷과 七情鬱結,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부산진구 진리 1로 10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6/08/21 · 수정 : 2006/09/15 · 채택 : 2006/10/09

1) 胸痛에 對한 東西醫學的 考察, p. 323
2) 黃帝內經 素問, p. 201
3) 醫門寶鑑(上), p. 232
4) 備急千金要方, p. 243
5) 備急千金要方, p. 239
6) 醫學心悟, p. 161
7) 醫學入門, p. 370
8) 國譯活人書, p. 290
9) 醫學正傳, p. 180
10) 黃帝內經 素問, p. 201
11) 黃帝內經 靈樞, p. 211
12) 黃帝內經 靈樞, p. 238
13) 國譯活人書, pp. 703, 708, 710
14) 金匱要略, pp. 734-71~734-75
15) 對譯東醫寶鑑, p. 660

飮食攝生의 不適節 등과 虛勞 혹은 過勞 等으로 五臟과 陰陽, 氣血의 失調등과 寒凝, 氣滯, 血瘀 濕痰으로 胸痛이 發生한다.

특히 重症의 胸痛에 해당되는 眞心痛은 西洋醫學的으로 狹心症, 心筋梗塞, 冠狀動脈疾患에 該當되는 것으로 報告[16]되고 있으며, 이들 疾患은 發生頻度의 增加와 早期診斷 및 治療의 失期로 높은 死亡率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正確한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이 매우 重要한데, 同一한 症狀이라 하더라도 形色과 臟腑가 다르므로 그 原因과 治法이 다르다[17]고 하였으므로 形象醫學的 診斷 및 治法이 매우 有效하다.

이에 筆者는 胸痛을 形象醫學的 觀點에서 考察하였으며, 胸痛과 관련된 臨床事例(세운한의원과 본인)를 形象醫學的인 觀點에서 分析 考察하여 그 結果를 報告하는 바이다.

본론 및 고찰

1. 胸痛의 病因病理

《東醫寶鑑》에서는 胸痛을 心痛, 胃脘痛, 胸痞와 結胸으로 區分하여 說明하고 있다.

첫째 心痛은 가슴이 아픈 것을 말하며[18], 病因은 外的要因[19][20][21][22]과 內的要因으로 大別되며 內的要因은 內傷[23][24][25], 七情損傷[26] 및 虛勞[27]와 瘀血[28], 客忤와 尸疰[29], 그리고 五臟六腑의 冷熱이 고르지 못한 境遇[30]에 誘發된다.

둘째 胃脘痛은 胃와 가슴이 아픈 것을 말하며[31] 飮食傷,[32], 冷.熱한 藥과 飮食의 過多服用[33], 瘀血과 痰飮[34]等 주로 內傷에 依하여 發病한다.

셋째 胸痞는 가슴이 그득하면서 아프지 않은 것[35]을 말하며, 原因은 內傷[36][37][38], 七情損傷[39]과 誤治[40][41] 等이다.

넷째 結胸은 가슴이 그득하고 아픈 것을 말하며[42], 傷寒病의 誤治[43], 傷寒 에 飮水過多[44], 瘀血[45]과 婦人이 月經前後에 찬 기운이 經絡을 타고 侵入하여 發病[46]하게 되니 誤治와 內傷이 主原因이다.

2. 《東醫寶鑑》에 나타난 胸痛의 分布

《東醫寶鑑》에 나타난 胸痛을 分類해 보면 胸痛, 心痛, 胃脘痛, 胸痞, 結胸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편의상 藥物에 나타난 胸痛은 除外하였다.

첫째 胸痛은 胸門의 心痛有九種, 心胃痛宜吐, 血結胸과 脇門의 鍼灸法, 筋門의 手心主之筋, 天地運氣門의 六癸年伏明之氣, 寒門의 鍼灸法, 解毒門의 挑生毒, 婦人門의 柴胡抑肝湯에 나타난다.

둘째 心痛은 氣門의 脈法, 五臟六腑門의 心病證, 蟲門의 蛔厥吐蟲, 蕪荑散, 靈砂散, 酒蟲과 胸門의 胸痛與胃脘痛病因不同, 通靈散, 점痛元, 蟲心痛, 疰心痛, 風心痛, 悸心痛, 食心痛, 飮心痛, 冷心痛, 桂枝四七湯, 去來痛, 心痛有六, 脾心痛, 胃心痛, 淸熱解鬱湯, 腎心痛, 積心痛, 厥心痛, 眞心痛, 七情作心痛, 七情心痛, 瘀血胃脘痛, 玄胡索丸, 勝金散, 梔萸丸, 煮黃丸, 麻黃桂枝湯, 心胃痛劫藥, 愈痛散, 神靈丹, 心胃痛宜吐, 心胃痛宜下, 飮食禁忌, 鍼灸法과 脈門의 茯神湯,天地運氣門의 六丙年漫衍之氣, 六癸年伏明之氣, 卯酉之勢(四之氣)와, 審病門의 察病玄機, 辨證門의 臟腑病急傳, 診脈門의 諸脈病證, 火門의 心熱, 內傷門의 呑酸吐酸, 麪朮丸, 一方과 虛勞門의 五勞, 癎亂門의 癎亂形證, 咳嗽門의 咳嗽雖屬肺臟部之異, 積聚門의 溫白元, 鍼灸法, 邪祟門의 太乙神精丹, 婦人門의 産後頭痛, 産後雜病등에 나타난다.

셋째 胃脘痛은 胸門의 心痛與胃脘痛病因不同, 蟲心痛, 溫胃湯, 連附六一湯, 莎芎散, 淸熱解鬱湯, 七情作心痛, 食積胃脘痛, 痰飮胃脘痛, 瘀血胃脘痛, 鍼灸法등과 湯液門의 諸經引導, 鍼灸門의 足太陰脾經流注등에 나타난다.

넷째 胸痞는 氣門의 氣痛, 導氣枳殼丸과 大便門의 久泄, 大便不通, 胸門의 脈法, 胸痞, 枳實理中丸, 瓜蔞實散, 痞宜吐下, 熨痞氣法, 結胸, 半夏茯苓湯, 柴陳湯, 鍼灸法과 寒門의 小柴胡湯, 勞復食復證, 傷寒賦와 內傷門의 錢氏異功散, 咳嗽門의 夜嗽등에서 나타난다.

다섯째 結胸은 氣門의 短氣, 血門의 蓄血證, 津液門의 頭汗, 痰飮門의 鶴頂丹, 頸項門의 項强, 胸門의 胸痞, 枳實理中丸, 桔梗

---

16) 虛血性 心臟病의 診斷과 治療, pp. 94~95
17) 對譯東醫寶鑑, p. 115
18) 對譯東醫寶鑑, p. 661
19) 上揭書, p. 661
"其久心痛者, 是心之支別絡爲風邪冷熱所乘痛"
20) 上揭書, p. 664 "熱心痛"
21) 上揭書, p. 871
"歲水太過, 寒氣流行, 心火受邪, 民病身熱·心躁·陰厥·傷下中寒·譫妄·心痛"
22) 上揭書, p. 873
"歲火不急, 寒乃盛行, 民病胸痛...心痛"
23) 上揭書, p. 663 "食心痛"
24) 上揭書, p. 663 "飮心痛"
25) 上揭書, p. 386 "酒蟲心痛"
26) 上揭書, p. 663 "悸心痛"
27) 上揭書, p. 1169
"五勞證 ; 曲運神機, 爲心之勞, 其證血少, 面無色, 驚悸·盜汗·夢遺·極則心痛·咽腫"
28) 上揭書, p. 669
"瘀血胃脘痛 ; 心痛脈澁者, 有死血也"
29) 上揭書, p. 662
"疰心痛 ; 卒感惡忤尸疰"
30) 上揭書, p. 1200
"癎亂形證 ; 人之臟腑, 冷熱不調 ...有心痛而先吐者..."
31) 上揭書, p. 661
32) 上揭書, p. 662
33) 上揭書, p. 664, p. 665
34) 上揭書, p. 669
35) 上揭書, p. 673
36) 上揭書, p. 1048
"勞復食復證 ; 食復者, 傷寒新差, 胃氣尙弱, 若恣飮食, 不能剋化. 胸痞者, 生薑瀉心湯"
37) 上揭書, p. 472
"大便不通 ; 腹脹痛悶, 胸痞欲嘔, 此宿食留滯也"
38) 上揭書, p. 676
"痞宜吐下 ; 飮食過傷, 心胸痞悶儿儿欲吐者 宜吐之"
39) 上揭書, p. 168 "氣痛"
40) 上揭書, p. 673 "胸痞"
41) 上揭書, p. 444 "久泄"
42) 上揭書, p. 673
43) 上揭書, p. 677 "結胸"
44) 上揭書, p. 678 "水結胸"
45) 上揭書, p. 212 "蓄血證"
46) 上揭書, p. 679 P. 1052
"婦人傷寒血結胸, 痛不可忍, 宜服海蛤散·玄胡索丸." "血結胸 ; 或問, 熱入血室, 何爲而成結胸也"

枳殼湯, 結胸, 大結胸, 小結胸, 寒實結胸, 熱實結胸, 柴陷湯. 水結胸, 血結胸, 陰陽毒結胸, 活龍散, 破結丹, 支結, 結胸法, 貶結胸法, 結胸不治證, 鍼灸法, 寒門의 太陽蓄血, 梔子豉湯, 傷寒結胸, 小陷胸湯, 三物白散, 大陷胸丸, 傷寒藏結, 傷寒血證, 傷寒胸腹痛, 熱入血室證, 血結胸, 桂枝紅花湯, 可下不加下證, 傷寒賦, 鍼灸法과 內傷門의 懊憹, 咳嗽門의 水結咳逆, 咳喘咳逆不治證等에 나타난다.

以上의 내용을 總括하면 《東醫寶鑑》에서는 胸痛, 心痛, 胃脘痛 胸痞, 結胸 중 주로 心痛과 結胸을 爲主로 해서 言及했으며, 각 條文의 分布를 보면 外形篇의 胸, 脇, 脈, 筋門과 雜病篇의 天地運氣, 審病, 辨證, 診脈, 寒, 火, 內傷 虛勞, 痞亂, 咳嗽, 積聚 邪祟, 解毒, 婦人門에 많이 分布하며 以外에도 內景篇의 氣, 五臟六腑, 蟲門과 湯液篇 鍼灸篇 등 《東醫寶鑑》의 全 篇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3. 形象醫學的으로 본 胸痛

1) 魚鳥走甲類

不變의 形象인 魚鳥走甲類[47]와 胸痛의 關係를 살펴보면, 魚類는 腎과 입이 크고 꼬리를 흔들어 矛盾을 排除하며 살아가므로[48] 腎의 相火가 動하면 따라서 心이 動하게 되어 痞症이나 腎心痛을 일으키며, 甲類는 등(肺의 집)이 발달했으므로 氣鬱하여 胸痛이 나타나며, 鳥類는 대체로 火性을 띠며 가슴이 발달했음으로 津液이 마르거나[49] 七情이 鬱結하여 咳喘, 嘈雜, 心虛와 陰虛火動等의 症狀과 더불어 胸痛을 發하고, 走類는 대체로 筋이 發達하고 肝이 크므로 木氣가 쉽게 鬱하여 土氣를 抑制하면 胃心痛이 發하게 된다.

2) 精氣神血科

變化의 形象인 精氣神血科[50]에서는, 精科는 基本生理가 聚集하는 作用으로 聚集作用이 過하거나 不足하여 病이 되는데, 胸痛은 주로 精의 漏泄로 因하여 火를 制御하지 못해서 發病하게 된다. 氣科는 基本生理가 散하는 것으로 過하면 氣가 虛해지고 不足하면 鬱滯하는데 胸痛은 주로 氣가 鬱滯하여 胸膈에 맺혀서 心氣를 不便하게 하거나, 肺氣를 鬱하게 하여 胸痛을 誘發하며 특히 마름모형의 氣科는 觀骨部位가 皆位로 보면 가슴에 해당하므로 胸痛이 잘 發生되는 形象이다. 神科는 火가 盛하여 陰虛火動하거나, 痰火가 가슴에 맺혀 嘈雜의 症勢를 일으키고, 또한 七情의 鬱結로 인하여 胸痛이 나타나게 된다. 血科는 上下(水火)의 交濟가 圓滑하지 못해서 胸痛이 나타난다.

臨床에서는 주로 氣科와 神科가 胸痛이 잘 오는데, 이것은 臟腑的으로 가슴이 肺와 心이 居하는 곳이고 또한 가슴은 氣의 집이며, 七情이 動하는 곳이므로 氣의 鬱滯와 七情의 鬱結은 胸痛을 惹起하고, 또한 가슴은 서늘해야 하는 곳인데 鬱滯와 鬱結은 火를 發生하므로 胸痛을 일으키게 된다.

3) 五臟六腑

五臟六腑의 發顯象은 얼굴에 있으므로 耳目口鼻의 大小高低剛柔偏正[51]과 色을 觀察하면 病의 狀態를 알 수 있다. 鼻孔이 들려 있으면 膀胱이 누설된 것[52]으로 心肺를 운행시키는 것은 肝腎이므로 前陰이 좋지 않으면[53] 腎心痛이 온다. 입술이 지저분하면 脾胃가 좋지 못해 食積이 생겨 發病하며, 山根이 높아도 三焦가 結하여 發病하고, 火性의 눈도 七情이 鬱結하여 胸痛이 잘 發生한다. 얼굴의 色은 주로 赤色과 黃色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赤色은 心臟의 火를, 黃色은 脾胃病으로 濕이 있음을 나타낸다. 얼굴 形態의 矛盾은 주름으로 나타나는데, 印堂이 鬱하였거나, 山根에 금이 있는 경우에 胸痛이 잘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4) 六經形

六經形[54]中에서는 多氣多血의 陽明形과 太陰形에서 잘 發生하는데 陽明形은 熱이 많고 飮食을 過食하는 傾向이 있어서 食積과 熱에 의하여 잘 發生하며, 太陰形은 太陰濕土하여 濕이 不收不舒하므로 昇降作用이 圓滑하지 않아서 胸痞症을 誘發한다. 少陰形과 少陽形은 多氣少血하므로 熱에 의해서, 厥陰形과 太陽形은 少氣多血하므로 凝集作用이 過하여 發病하게 된다. 또한 胸痞나 結胸等 傷寒處方이 爲主로 된 症狀에서는 六經形으로 나타난 形象으로 診斷하여 治法을 구하면 좋은 治療效果를 볼 수 있다.

5) 六氣

《黃帝內經·素問》〈至眞要大論〉[55]에서 "대개 百病이 생기는 것은 모두 風寒暑濕燥火의 變化로부터 發生한다"하여 인체가 生存을 위해서는 자신의 形象을 環境에 맞춰 변해야만 한다. 즉 외부 六氣에 相應하여 人體內部의 臟腑, 經絡, 氣血 等이 調和를 이루며 변화해 가야만 한다. 또한 六氣는 臟腑機能의 失調로 人體內部에서도 病理的인 狀態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內邪五氣'라 하여 바로 內風·內寒·內濕·內燥·內火熱[56]이 그것이다. 사람은 風이 많은 곳에서는 風을, 寒이 많은 속에서는 寒을, 濕이 많은 곳에서는 濕을 排除해야만 生存이 가능하다.

이러한 六氣의 變化는 色으로 나타나는데 風이 많으면 코끝이 붉고 입술이 씰룩거리며[57], 寒이 많으면 魚際가 푸르고 입술도 떨고 푸르며[58], 濕이 많으면 얼굴이 누렇고 浮하고 光澤이 있으며[59], 火熱이 많으면 얼굴이 붉다[60]. 위와 같은 發顯象은 六氣와 臟腑 經絡의 關聯性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이 또한 形象的 診斷이 가능한 좋은 例이다.

六氣의 變化와 胸痛과의 關係를 살펴보면, 風·寒·暑·濕과 內火熱에 의하여 많이 發病한다.

6) 男女

形象醫學에서는 男子의 基本形象을 黑長肥剛하고 女子는 白短瘦柔하다고 본다. 또한 耳目口鼻의 特性을 비교해 보면 男子는 코와 귀 위주로, 女子는 입과 눈 위주로 생겼으면서, 男子는 코가 發達되었고 女子는 입이 發達되었으며, 몸통에서는 女子는 가슴

47) 《黃帝內經》에 나타난 形象에 관한 考察, pp. 30~31
48)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Ⅲ, p. 66
49)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Ⅰ, p. 67
50) 《黃帝內經》에 나타난 形象에 대한 考察, pp29~30
51) 對譯東醫寶鑑, p. 299
52) 上揭書, p. 350
53)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Ⅶ, p. 161
54) 《黃帝內經》에 나타난 形象에 대한 考察, pp. 25~26
55) 黃帝內經 素問, p. 661
56) 東醫病理學, p. 31
57) 對譯東醫寶鑑, p. 597, p. 600
58) 上揭書, p. 600, p. 767
59) 上揭書, p. 1087
60) 上揭書, p. 1101

과 臀部가 發達되었고, 男子는 어깨와 배가 發達되었다. 形象的으로는 男子는 形을 위주로 하고 女子는 象을 위주로 보아 남자는 形이 盛하고 女子는 氣가 盛하다. 男子는 性命의 根本이 腎에 있고 女子는 乳房에 있다. 女子는 前面에서 보면 上體가 좁고 下體가 넓으며 側面에서 보면 上體가 넓고 下體가 좁은 것이 基本形이며, 男子는 反對가 된다[61]. 따라서 胸痛은 男子보다는 女子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女子가 性命의 根本이 乳房에 있고 用事하는 部位가 가슴에 있을 뿐만 아니라, 女子가 男子같은 形象 즉 黑長肥剛하거나 코가 發達되거나 혹은 어깨가 發達되어 있는 경우에 精神과 肉身의 乖離로 因하여 七情이 鬱結하여 胸痛이 發하며, 간혹 男子에게도 胸痛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도 女子같이 생긴 男子에게 나타나게 된다

4. 臨床例

1) 走鳥魚甲의 矛盾으로 發病한 胸痛

(1) 臨床例1 - 여자 4세, 김○○

[形色] : 鳥類이고, 눈이 예쁘다. 가슴이 陷沒되었다.

[症狀] ① 양방병원에서 心臟中腦 缺損으로 진단을 받았다. ② 숨이 가쁘고 기침 가래가 있다. ③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놀라며 땀이 많다.

[處方] : 桔梗湯[62]

[考察] : 質量形을 갖춰서 節을 맺는 시기가 4세이다. 이 때의 節이라 함은 腎氣가 出入하는 것을 말한다[63]. 小兒는 形象을 위주로 보고 脈은 度外視해도 된다. 왜냐하면 脈은 몸 즉 12經脈을 보는 것으로 小兒는 種子를 위주로 허서 보기 때문에 人迎과 氣口脈만을 보아도 되며, 人迎과 氣口脈을 보는 것은 風寒濕에 4세까지는 傷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잘 놀래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며 기침을 하고 숨이 가쁜 것은 五臟이 나쁘기 때문이다. 五臟六腑의 咳가 있는데 여기에도 男과 女를 區分한다. 이것은 女子는 六腑를 體로 하고 五臟을 用事하며 男子는 五臟을 體로 하고 六腑를 用事하므로 女子는 五臟咳가 되는 것이고 男子는 六腑咳가 되는 것이다 즉 이 患者는 五臟咳 중 心咳의 桔梗湯을 投與하였다.

(2) 臨床例2 - 여자 38세, 이○○

[形色] : 鳥類(火體), 太陽形, 手掌 黃.

[脈]72 / 74

[症狀] 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②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자주 아프다. ③ 대변이 가늘고 소변이 잘 나오지 낳는다. ④ 대하가 있다. ⑤ 손바닥에 땀이 난다. ⑥ 中脘의 壓通點이 있다.

[處方] : 香砂養胃湯[64]

[考察] : 脈이 臍에 떨어졌다는 것은 任脈에 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火體이므로 가슴을 用事하여 살아간다고 볼 수 있으며, 손바닥이 노란 것은 心肺가 좋지 않다는 것이고[65] 땀이 있는 것은 심장이 濕을 군히는 作用을 하는데 濕을 排除하려는 노력의 하나로[66]가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胸門의 香砂養胃湯을 投與하였다.

(3) 臨床例3 - 여자45세, 송○○

[形色] : 甲類, (마름모형)氣科, 陽明形, 안경(近視).

[脈] 83 / 84

[症狀] ① 가슴이 터질 듯이 열이 난다. ② 눈물이 많고 눈이 찜찜하다. ③ 頭痛. ④ 절망적인 생각과 혼자 불행한 것 같은 생각이 난다. ⑤ 평소에 신중하다.

[處方] : 化痰淸火湯[67]

[考察] : 마름모형 氣科이며, 거북의 형상을 가진 자로 다른 사람보다 못하므로 남의 위에 서려 한다. 거북은 물에서는 물고기보다 못하고 뭍에서는 말보다 못하다. 陽明은 욕심이 많다. 즉 출세를 하여 남을 부리려 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속을 끓이고 살기 때문에 가슴에 痰火가 생겨 糟囓의 증세를 일으킨 것이므로 化痰淸火湯을 投與하였다.

(4) 臨床例4 - 여자 46세

[形色] : 火體(鳥類), 피부가 검다. 眼胞가 煙灰黑色

[脈] 72 / 70

[症狀] ① 병원에서 심장동맥 塞栓症으로 진단함. ② 左 腋下가 우리하게 아프다. ③ 피곤하며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는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④ 痰飮의 症狀이 있다.

[處方] : 古庵心腎丸[68]

[考察] : 이 患者는 色이 검고 火性을 띠었으므로 陽盛陰虛한 形象이다. 즉 火의 象을 가지고 있으므로 動하기만 하고 靜 할 줄을 몰라서 腎精이 耗損되고 虛熱이 發生한다. 그러므로 腎精이 虛하게 되고 心臟은 過熱되니 心臟疾患이 發生하고 心虛하니 血氣가 不足하여 左腋下의 痛症이 發生한 것이다. 즉 心腎이 虛하고 虛熱이 있으므로 虛勞門의 古庵心腎丸을 投與하였다.

(5) 臨床例5 - 여자 38세, 양○○

[形色] : 木體(走類), 키가 큼, 印堂에 금이 있고, 顴骨주위에 기미가 심하다.

[脈] 68 / 80

[症狀] ① 소화가 되지 않으면 胸痛이 생긴다. ② 불안하고 초조하며 淺眠하고 꿈이 많다. ③ 입술주위가 감각이 둔하다. ④ 속이 비면 통증이 있으며 간혹 신물이 넘어오기도 한다.

[處方] : 淸鬱散[69]

[考察] : 키가 크고 코가 길죽한 木體의 形象을 가진 자로 木氣가 鬱하여 土氣를 抑制하여 胃心痛이 생긴 것이다. 또한 印堂에 금이 있는 것은 心氣가 不便한 것으로 胸痛을 誘發했으므로 胃心痛의 處方인 淸鬱散을 投與했다.

2) 精氣神血의 矛盾으로 發生한 胸痛

(1) 臨床例1 - 여자 74세, 권○○

[形色] : 얼굴이 검다. 上下로 길쭉하게 생겼다(血科). 안경을 썼음.

61) 大韓傳統醫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62) 對譯東醫寶鑑, p. 1230
63) 芝山先生臨床學特講II, p. 82
64) 對譯東醫寶鑑, p. 675
65) 芝山先生臨床學特講IV, p. 253
66) 芝山先生臨床學特講II, p. 175
67) 對譯東醫寶鑑, p. 1153
68) 對譯東醫寶鑑, p. 1179
69) 對譯東醫寶鑑, p. 666

[脈] 70 / 72

[症狀] ① 狹心症이 있어서 心痛이 있다. ② 관절과 허리가 아프다. ③ 不安, 焦躁, 깊은 잠을 잘 못 잔다.

[處方] : 天王補心丹[70]

[考察] : 얼굴이 길다는 이미는 水火의 交濟가 힘들다는 의미이고 水火는 心臟과 腎臟을 의미한다 즉 心과 腎을 用事하여 살아왔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이와 形象을 고려할 때 이 환자는 心腎 즉 뿌리가 나빠져서 衰弱해 진 것으로 上記의 處方을 쓰면 心과 腎이 좋아져 心痛과 무릎과 허리가 좋아질 것이다.

(2) 臨床例2 - 여자 36세, 방○○

[形色] : 精科, 姙娠 中.

[脈] 90 / 90

[症狀] 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心下部가 답답하고 치 받히는 느낌이 있다. ② 불안하고 초조하며 잠을 잘 못 잔다.

[處方] : ① 八物湯 去 人蔘 加 砂仁・陳皮・海蔘[71](임신 2개월 때의 처방) ② 竹葉湯[72]

[考察] : 임신 4~5개월이 되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불량의 증세가 있는 것은 煩燥症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形氣가 어울리지 못해서 發病한 것이다.

①번 약을 쓰고 난 후 不安, 憔躁, 不眠의 症狀은 좋아 졌으나 ①의 症狀은 消失되지 않았다. 子煩[73]이라는 것은 임신4~5개월 사이에 相火의 기가 성하거나 그 계절의 기가 성한 몹시 더울 때 생긴다. 相火는 脾肝腎의 火가 動한 것을 相火라 하며 脾肝腎은 써먹는 臟器로서 臟器의 津液이 不足하면 火가 動하게 되어 있다. 君火란 입을 말하는 것으로 心 小腸을 다스리는 것이 君火다. 五臟六腑의 長은 心臟이고 五臟의 長은 肺이다 입은 六腑가 들어 있는 곳이다. 이것은 眞心 小腸이라 한다. 六腑의 長이란 津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즉 火가 動했다는 것은 津液이 그릇에 채워지지 못했거나 써먹어서 비어 있는 것을 말한다[74].

(3) 臨床例3 - 여자 39세, 김○○

[形色] : 氣科, 검다.

[脈] 109 / 104

[症狀] ① 胃脘心痛(悸心痛)이 있다. ② 예전에 膀胱炎이 있었고 긴장하면 대변을 자주 본다. ③ 우 견비통이 있고 손이 저리며 요통이 있다. ④ 기관지약을 복용하고 소화불량, 胸痞, 惡心, 小腹痛이 있다.

[處方] : 正氣天香湯(悸心痛)[75]

[考察] : 氣氣科의 여자는 氣의 鬱滯로 病이 오는데 이 환자는 더구나 얼굴 색이 검어서 남자처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精神과 肉體의 乖離가 생겨 思慮가 심하여 心은 依存하나 神은 돌아가는 고로 精氣가 停滯하고 通하지 않아 氣가 맺힌다 하였으니 氣의 鬱滯가 더욱 심하여 悸心痛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悸心痛의 正氣天香湯을 投與하였다.

(4) 臨床例4 - 여자 46세, 이○○

[形色] : 氣科, 얼굴 색은 누렇다.

[脈] 66 / 63

[症狀] ① 눈썹 위로만 머리가 아프고 눈도 침침하다. ② 가슴이 답답해서 불이 날 것 같고 메슥거리며 저녁에 누우면 더 심하다. ③ 허리가 아프면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통증이 심하다. ④ 추위, 더위에 약하고 口內炎도 잘 생긴다. ⑤ 위궤양으로 병원 약을 3~4년간 服藥 중이다.

[處方] : 解鬱和中湯[76]

[考察] : 이 환자는 氣科이기 때문에 氣가 鬱해서 온 것이다. 밤에 症狀이 더 심하다는 것은 洋藥을 오래 服用해서 血이 傷했기 때문이다. 解鬱和中湯의 條門에 누우면 더 심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血病으로 보라는 의미이다.

(5) 臨床例5 - 여자 53세

[形色] : 氣科, 코끝이 붉고 얼굴의 측면에 때가 끼었다.

[脈] 76 / 74

[症狀] ① 梅核氣가 있다. ② 가슴이 아프다(심통이 주소증) ③ 소화가 안 된다. ④ 대소변이 시원치 않다.

[處方] : 分心氣飮[77]

[考察] : 이 환자는 氣科이니 氣가 鬱體한 것으로 보며, 脈이 膀胱에 떨어졌으므로 머리를 중심으로 보아 七情心痛으로 본다. 만약 脈이 膵에 떨어 졌으면 몸통을 위주로 보니 七氣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코끝이 붉으므로 風으로 보고 風心痛으로도 볼 수 있다. 얼굴의 측면이 지저분한 것은 升陽이 잘 안 된다고 보면 된다. 七情心痛이나 風心痛 모두 分心氣飮을 쓸 수 있으므로 이 處方을 投與하였다.

(6) 臨床例6 - 여자 38세, 전○○

[形色] : 觀骨이 크다. 얼굴이 마름모형이며, 눈이 함몰되어 있다.

[脈] 73 / 72

[症狀] ① 식사는 잘 하는데 명치끝이 아프다. ② 식사 후에 나른함을 느낀다. ③ 머리가 늘 무겁고 뒷목이 뻣뻣함을 느낀다. ④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들다.

[處方] : 行氣香蘇散去 麻黃 加 神曲・檳榔[78]

[考察] : 여자는 血을 體로 삼고 氣를 用事하기 때문에 키가 작고 몸이 가늘어야하는데, 이 환자는 美麗하지 못한 觀骨이 크고 마름모형인 남자의 形象을 가지고 있다. 美麗하지 못하면 잘 돌아가지 못하는 머리를 억지로 돌리려고 하니까 스스로 七情이 惱怒하게 된다[79]. 또한 잘 돌지 못하므로 內外를 分別하지 못한다. 그래서 氣道가 막혀서 가슴이 답답하고 사지에 힘을 못 받게 된다. 또한 脈도 脾臟에 떨어 졌다. 이것을 積心痛이라고 한다. 積心痛의 平胃散은 五臟六腑가 나쁠 때 쓰고 行氣香蘇散은 12經脈이 나쁠 때 쓰는데[80] 이 경우는 運行이 잘 되지 않아서 온 경우이므로 行氣香蘇散을 投與하였다.

(7) 臨床例7 - 여자 51세, 장○○

[形色] : 膵體, 氣科, 印堂이 鬱했고, 眼胞가 煙灰黑色.

70) 對譯東醫寶鑑, p. 205
71) 新增補辨證 方藥合編解說, p. 87
72) 對譯東醫寶鑑, p. 1616
73) 對譯東醫寶鑑, p. 1616
74)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Ⅳ, pp. 243~244
75) 對譯東醫寶鑑, p. 161
76) 對譯東醫寶鑑, p. 676
77) 對譯東醫寶鑑, p. 163
78) 新增補辨證 方藥合編解說, p. 132
79)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Ⅵ, p. 392
80)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Ⅱ, p. 13

[脈] 63 / 60

[症狀] ① 가슴과 등이 뻐근하게 아프고, 화가 나면 胸悶의 증상이 있다. ② 좌편두통이 심하고 머리가 무겁고 얼굴 쪽으로 조여드는 느낌. ③ 頭額汗出. ④ 소변이 시원치 않다. ⑤ 차멀미가 심하다. ⑥ 膽石手術을 함.

[處方] : 加味四七湯[81]

[考察] : 氣科이므로 氣가 鬱하기 쉬운데다가 印堂이 鬱했으므로 心氣가 불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脈도 膽에 떨어져서 인체의 前面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이것이 怔忡과 胸痛을 일으켰고, 또한 痰飮의 形象이 있으므로 차멀미와 偏頭痛을 야기했으며, 心臟의 熱이 小腸에 전하였으므로 소변이 시원치 않은 증상을 일으켰다. 이 모두가 心氣가 鬱滯한 것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加味四七湯을 投與하였다.

(8) 臨床例8 - 여자 38세, 이○○

[形色] : 陽明. 마름모형氣科. 觀骨이 붉다.

[脈] 74 / 76

[症狀] ① 감기가 잘 오는데 주로 項背와 四肢의 痛症이 나타난다. ② 가슴이 뻐근하고 간혹 背痛이 있다. ③ 속이 더부룩하고 대변이 시원치 않다. ④ 손발이 차다.

[處方] : 行氣香蘇散[82]

[考察] : 氣科는 氣의 鬱滯가 오기 쉽고 觀骨이 옆으로 나온 것은 皆位 상 가슴에 해당[83]하여 胸痛과 背痛을 일으켰으며, 또한 陽明形으로 먹는 것에 節度를 잃어 脾胃를 傷했고, 脈이 左人迎脈이 높으므로 外感의 症狀을 同伴했으므로 積心痛으로 보고 行氣香蘇散을 投與했다.

(9) 臨床例9 - 여자 25세, 김○○

[形色] : 氣科, 膽體, 太陽形, 面黃, 手掌黃, 魚際가 靑色, 眼胞가 煙灰黑色.

[脈] 68 / 76

[症狀] ① 가슴이 답답하고 간혹 통증이 온다. ② 속이 더부룩하고 메슥거린다. ③ 어깨와 등이 아프다. ④ 中脘과 氣海穴에 壓通點이 있다. ⑤ 소변이 시원치 않다.

[處方] : 香砂養胃湯

[考察] : 손바닥이 노랗다는 것은 脾胃의 昇降作用이 되지 않아 나타난 陰伏陽蓄症이 있는 것이며, 어제가 푸른 것은 배가 찬 것을 의미하고, 氣海穴의 壓痛이 있다는 것은 氣가 鬱滯하여 가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眼胞의 色과 中脘의 壓通點은 痰飮이 있는 것이며, 또한 太陽形의 類形이 있으므로 胸痞症에 쓰는 香砂養胃湯을 投與했다.

3) 五臟六腑의 矛盾으로 發病한 胸痛

(1) 臨床例1 - 남자 35세

[形色] : 코가 들려있다. 눈썹이 길다

[脈] 58 / 56

[症狀] ① 가슴이 아프면서 등도 아프다. ② 아랫배가 불편하면서 고환이 당기듯이 아프다. ③ 목구멍이 자주 마르고 시원한 물을 마시면 간혹 토하는 경우가 있다. ④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⑤ 옆구리 허리가 간혹 아프다.

[處方] : 五笭散 去 白朮 倍加 肉桂[84]

[考察] : 코가 들려 있어서 膀胱이 나쁘게 되어 있다. 이 경우는 腎心痛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生殖器가 나쁜 것은 心臟이 나쁘게 되어 있다. 心이 動하면 따라서 相火가 動하고 動한 즉 交合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이에 精이 흘러서 消泄되기 때문에 腎心痛이 온 것이다. 腎心痛의 處方 중 五笭散을 投藥한 이유는 코가 들려 있으면 膀胱이 漏泄 된 것이고 五笭散이 膀胱의 主藥이기 때문이다.

(2) 臨床例2 - 남자 44세

[形色] : 코가 들림.

[脈] 70 / 70

[症狀] ① 1년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에서 깨어날 때 혹은 낮에 가끔씩 가슴의 중간부위가 쪼개지는 것 같이 아프다. 병원 진찰 결과 혈관에 때가 낀 상태라 한다. ② 눈이 침침하고 시린데 햇빛을 보면 더욱 심하다. ③ 뒷목이 뻐근하다. ④ 소화가 잘 되지 않고 腸鳴이 있으며 대변이 무르다.

[處方] : 蟠葱散[85]

[考察] : 남자는 背와 腹을 用事하기 때문에 가슴의 病이 적고, 여자는 가슴과 허리를 쓰기 때문에 가슴과 허리의 병이 많다. 남자가 胸痛이 왔다는 것은 生殖器가 나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左右의 어깨는 心肺로 이루어 졌다. 心肺를 운행하는 것은 肝腎이다. 心肺 자체가 運行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환자는 腎心痛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蟠葱散을 投與하였다.

(3) 臨床例3 - 남자 72세

[形色] : 膀胱體이고, 얼굴이 붉다.

[脈] 92 / 92

[症狀] ① 肺氣腫의 증상으로 來院하였다. ②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

[處方] : 淸肉滋坎湯[86]

[考察] : 喘咳는 肺의 異常으로 發病한다. 얼굴이 붉은 것은 心臟의 火가 있는 것으로 火克金하여 肺가 傷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心臟의 火는 心臟을 부풀게 하고 心臟이 부풀면 肺도 부풀어 喘息을 일으킨다[87]. 이 경우는 淸肉滋坎湯을 投與한다. 만약 陰虛火動의 症狀이 확실하면 六味地黃湯도 可能하다. 피부가 가려운지(心主瘡하므로), 몸이 무거운지(脾主困)등도 물어보아야 한다.

(4) 臨床例4 - 여자 38세, 오○○

[形色] : 血科. 입술이 얇다. 코 위주로 생겼다. 面黃, 眼胞가 煙灰黑色.

[脈] 114 / 112

[症狀] ① 便秘. ② 痰飮의 症狀이 모두다 있다. ③ 빈혈이 심하다. ④ 梅核氣가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怔忡症이 있다. ⑤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아프다. ⑥ 배에 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

[處方] : 加味二陳湯[88]

81) 對譯東醫寶鑑, p. 187
82) 對譯東醫寶鑑, p. 667
83) 芝山先生臨床學特講VI, p. 51
84) 對譯東醫寶鑑, p. 666
85) 對譯東醫寶鑑, p. 808
86) 對譯東醫寶鑑, p. 1117
87) 芝山先生臨床學特講III, p. 229

[考察] : 얼굴의 색이 누렇다는 것은 五臟으로 보라는 의미이고[89], 心肺가 좋지 않으면 얼굴빛이 나빠진다[90]. 코 위주로 생겼는데, 이 때는 코를 脾胃로 보며 또한 코는 天地에 걸쳐 있다. 그리고 痰飮의 形象과 症狀이 모두 있으므로 胸門의 痰飮胃脘痛에 쓰는 加味二陳湯을 投與하였다.

(5) 臨床例5 - 여자 29세, 기○○

[形色] : 魚際가 푸르다. 얼굴이 누렇다.

[脈] 82 / 86

[症狀] ① 5년 전에 우측 난소 난관 수술 좌측도 일부 切斷. ② 10일 전부터 2일 동안 4時半경부터 胸痛과 胸部 壓迫感이 있었다. ③ 다음날 날씨가 더운데 운전을 하던 중 左手麻痺感을 느꼈다. ④ 다음날 오전에 5분간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處方] : 香砂養胃湯[91]

[考察] : 魚際가 푸르다는 것은 배가 차다는 의미이다. 胃는 더워야 음식을 잘 소화시킬텐데 胃가 冷하면 소화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식사시에는 머리가 動하지 않아야 소화가 잘 된다. 脾가 歌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子宮과 胃는 內外의 관계다. 子宮은 胃의 貫이다. 여자가 胃腸이 나쁘면 子宮이 같이 나쁜 경우가 많다. 음식이 胃에 들어가면 津液이 짜져서 心으로 들어간다. 心臟에 부담이 되어서 생기는 症勢이다. 心臟에서 12經脈이 運行되지 않아서 食心痛이 온 것이므로 香砂養胃湯을 投與하였다.

(6) 臨床例6 - 남자 54세, 김○○

[形色] : 印堂이 陷沒, 山根에 주름, 볼이 붉다.

[脈] 77 / 80

[症狀] ① 한달 전 야간에 2회, 2일전 한번 오늘 아침에 가슴이 뻐근하게 통증이 있었는데 약 20분간 지속된 후 사라졌다. ② 모 종합병원에서 협심증이라고 한다. ③ 트림이 약간 있다. ④ 저녁을 과식한다.

[處方] : 香砂養胃湯[92]

[考察] : 山根에 주름이 있다는 것은 心臟에 이상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脈動이 肝脾에 걸쳐 있으므로 肝脾가 鬱한 것으로 怒鬱을 의미하고 저녁을 많이 먹었으므로 食心痛을 이룬 것이다. 즉 食心痛에 있는 香砂養胃湯을 投與하고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저녁을 적게 먹도록 해야 한다.

(2) 臨床例7 - 여자 22세, 박○○

[形色] : 얼굴이 예쁘다(火性). 눈빛이 강하다. 山根에 주름이 있다. 山根이 높고, 코가 크며, 턱이 나와 있다.

[脈] 68 / 72

[症狀] ① 허리부위와 심장부위가 아프다. ② 梅核氣가 있다. ③ 간혹 不安, 焦躁하고 興憤되면서 잘 운다고 한다. ④ 밤이 되면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고 우울증도 있다.

[處方] : 加味四七湯[93]

[考察] : 山根의 부위에 주름이 있다는 것은 山根이 心臟에 해당하니까 心氣가 鬱滯된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된다. 山根이라는 것은 뿌리라는 뜻인데 여자가 여기가 나쁘다는 것은 뿌리내리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눈이 强하다는 것은 아랫배가 弱하기 때문에 눈을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陰陽이 나쁜 것은 氣血로서는 강하게 만들어 놨다. 剛柔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이 환자의 경우, 加味四七湯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약이다. 또한 약을 복용하면서 설사를 하면 증상이 호전된다. 이것은 心이 便과 汗을 주관[94]하기 때문이다.

밤에 증상이 심한 것은 血이 盛해서 胎를 품고자 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柴胡抑肝湯[95]을 써서 胎를 품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주면 증상이 소실된다.

(8) 臨床例8 - 여자 34세, 최○○

[形色] : 입술이 지저분하다. 얼굴이 浮澤하고, 코가 길고 강하게 생겼다.

[脈] 83 / 76

[症狀] ① 가슴이 답답하고 누우면 더욱 심하다. ②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꿈이 많다. ③ 自汗, 盜汗이 있다. ④ 속이 더부룩하고 메슥거린다. ⑤ 鵝口瘡이 생기고 구취가 있다.

[處方] : 解鬱和中湯[96]

[考察] : 입술이 지저분한 것은 脾胃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脈도 胃에 떨어졌으므로 脾胃病으로 보아야 하며, 얼굴이 浮澤한 것은 濕을 말하고 濕은 不收不舒하므로 胸腹에 疾患이 있음을 나타낸다. 증상이 밤에 심한 것은 血分에 病이 있는 것을 말하고, 鵝口瘡과 口臭는 內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胸門의 解鬱和中湯을 投與하였다.

4) 六經形의 矛盾으로 發病한 胸痛

(1) 臨床例1 - 남자 62세, 조○○

[形色] : 太陰形이며, 手掌이 누렇다. 눈썹이 별로 없다.

[脈] 72 / 70

[症狀] ① 20년 전 처음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사방이 저리며 볼기짝 부근이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다. ② 1993년에 허리수술을 해서 핀을 박았다. ③ 똑바로 누우면 몸이 벌떡 벌떡 뛸 정도이고 가슴이 꼬인 듯이 아프며 옆구리도 아프다. ④ 胃脘部位가 뜨끔뜨끔 아프다. ⑤ 손이 가려워서 긁으면 곪아터진다.

[處方] : 香砂養胃湯[97]

[考察] : 이 환자는 太陰形으로서 土란 太陰으로 太陰은 精이 凝集되어 오르지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것이다. 즉 不收不舒한다. 그래서 天地의 交泰를 시켜주어야 한다. 손은 心肺의 싹으로 心肺의 氣가 펴지지 못하면 싹이 누렇게 변하니 손바닥이 누런 것은 心肺의 氣가 펼쳐지지 못한 것으로 본다. 즉 脾胃의 氣가 升降하지 못해서 오는 胸痞症으로 보고 香砂養胃湯을 投與하였다.

(2) 臨床例2 - 여자 46세, 김○○

[形色] : 少陽形, 코가 길쭉하고, 面白, 손바닥이 노랗다.

[脈] 72 / 72

88) 對譯東醫寶鑑, p. 282
89)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Ⅲ, p. 392
90) 對譯東醫寶鑑, p. 1167
91) 對譯東醫寶鑑, p. 1146
92) 對譯東醫寶鑑, p. 1146
93) 對譯東醫寶鑑, p. 187
94) 對譯東醫寶鑑, p. 1329
95) 對譯東醫寶鑑, p. 1642
96) 對譯東醫寶鑑, p. 676
97) 對譯東醫寶鑑, p. 675

[症狀] ① 가슴이 막힌 듯 시원하지 않다. ② 한숨을 자주 쉬고 자꾸만 슬퍼진다. ③ 속이 메슥거리고 가슴이 잘 두근거리며 얼굴에 열이 자주 오르고 어지러울 때가 있다. ④ 항상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으며 자꾸 졸음이 쏟아진다.

[處方] : 香砂陽胃湯(胸門)

[考察] : 가슴은 氣海로 氣가 鬱하면 四肢로 氣가 뻗어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四肢가 無力한 것이며 氣力이라는 것은 인체 내에서 相須, 相合, 相敵, 相反의 作用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이 환자는 가슴이 좋지 않기 때문에 無氣力한 증상이 있는 것이다. 또한 환자는 類形이 있고 손바닥이 황색으로 陰伏陽蓄된 것이므로 香砂陽胃湯을 投與하였다.

5) 六氣의 異常으로 發病한 胸痛

(1) 臨床例1 - 여자 44세, 최○○

[形色] : 얼굴이 浮澤하다.

[脈] 80 / 76

[症狀] ① 가슴이 답답하고 메슥거린다. ② 눈이 침침하다. ③ 잠이 잘 오지 않고 뒷목이 뻣뻣하다.

[處方] : 香砂陽胃湯(胸門)

[考察] :얼굴이 浮澤한 것은 濕이 있는 것으로 보며, 濕의 성질은 不收不舒하다. 물이 되지도 못하고 공기가 되지도 못한 상태가 濕이다. 봄. 여름에 盛한 濕熱이 가을. 겨울이 되면서 청량하게 변하지 못한 것은 계절에 따라 인체가 변해야하는데 변하지 못한 것으로 가을이 되면 가을비가 내려서 땅을 서늘하게 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地氣가 서늘해지지 않아서 온 병이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생긴 것이므로 胸痞의 香砂陽胃湯을 投與하였다.

(2) 臨床例2 - 남자 55세, 오○○

[形色] : 膵體. 面浮澤. 귀밑과 목의 측면이 붉다.

[脈] 100 / 98

[症狀] ① 다리에 힘이 없다. ② 소변이 황색이고, 소변줄기가 약하고 설사는 아닌데 변이 시원치 않다. ③ 간혹 胸痛이 있고 헛배가 자주 부른다. ④ 4년 전 교통사고로 소장을 10cm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 ⑤ 술을 자주 마시고 입이 마른다.

[處方] : 蒼橘湯[98]

[考察] : 얼굴이 浮澤하다는 것은 面病이 胃에 속하므로 胃를 다스려야 한다. 또한 手足은 成體의 根本이므로 胃가 樞가 되고 또한 肝腎은 胃의 責이 된다. 胸痛이 오는 것은 酒의 性質이 오르기를 좋아하고 기가 반드시 따라서 오르니 痰이 위에서 鬱하고 小便이 밑에서 澁하게 된다. 이 환자는 小腸을 수술했기 때문에 表裏關係로 보아 心臟에서 酒毒을 조절해 주는 힘이 없어서 가슴이 아픈 것이다. 그리고 하체에서 濕熱이 생겨서 다리가 무력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酒毒이 濕熱毒을 이루므로 濕熱毒을 除去하는 蒼橘湯을 投與하였다.

6) 男女의 矛盾으로 發病한 胸痛

(1) 臨床例1 - 여자 63세, 강○○

[形色] : 턱에 살이 없다. 天垂象.

[脈] 88 / 88

[症狀] ① 오른쪽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다. ② 過食을 한 후 소화가 되지 않는다. ③ 힘을 쓰고 나면 소변이 시원치 않고 아랫배가 뻐근하게 아프다. ④ 찬바람을 쐬고 나면 얼굴이 시리고 머리가 쑤시고 따끔거린다.

[處方] : 補天大造丸[99]

[考察] : 턱에 살이 없는 天垂象은 肝腎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肝腎은 血氣를 의미하며, 나이가 60이 되면 心氣가 衰하고 우수가 많아지며 血氣가 懈惰한다[100] 하였으며, 脈도 膵에 있으므로 血虛하여 形이 衰한 것이므로 나이와 形象과 脈을 考慮할 때 血氣를 돋구어야 한다. 大造丸은 血氣를 돋구어 주는 약으로서 좌측이 나쁠 때 혹은 膵일 경우는 大造丸[101]을 쓰고, 우측이 나쁘거나 膀胱일 경우에는 補天大造丸을 쓴다.

(2) 臨床例2 - 여자 53세, 조○○

[形色] : 鼻大, 面色黃.

[脈] 72 / 69

[症狀] ① 心窩部에서 등까지 막힌 듯한 느낌이 있다. ②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③ 쉽게 피로하고 허리가 아프다. ④ 간혹 陰部瘙痒感이 있다.

[處方] : 藿香正氣散[102]

[考察] : 여자는 입을 위주로 생겨서 입을 體로 하고 코를 用事하는 것인데, 이 환자는 거꾸로 되어 있으므로 앞뒤가 나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뒤라는 것은 表裏를 의미하며 表裏가 나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表裏가 불분명할 때 쓰는 藿香正氣散을 投與하였다..

(3) 臨床例3 - 여자 14세, 변○○

[形色] : 瘦人(皮骨이 相接할 정도로 마름), 코에 주름이 있으며, 얼굴은 희고, 血色이 없다.

[脈] 72 / 72

[症狀] ① 배꼽아래가 아프면 화장실을 간다. ② 아침을 먹고 학교가면 복통이 자주 일어난다. ③ 心窩部에 통증이 있다. ④ 盜汗. ⑤ 蓄膿症이 있다. ⑥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處方] : 歸脾湯 加梔子一錢[103]

[考察] : 心痛이 思慮로 인해 온 것으로 여자는 원래 신경을 많이 쓰므로 살이 찌지 않게 되어 있으나, 이 환자는 뼈에 껍질밖에 없을 정도로 말랐으므로 思慮가 무척 심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경을 덜 쓰게 하거나 밥을 잘 먹게 해야 한다. 여자는 14세가 되면 생리를 한다. 즉 14세란 나이는 변화해야 할 시기인데 변하지 못하여 온 것이다. 변화하도록 憂鬱한 것부터 풀어주고 코에 주름이 있는 것은 肝이 虛한 것이고, 또한 血色이 없으므로 血虛한 것이다. 血虛한 경우에는 歸脾湯에 溫膵湯을 合하여 投與한다.

결 론

《東醫寶鑑》을 中心으로 形象醫學的인 관점에서 胸痛을 考察하고 臨床實例를 살펴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98) 對譯東醫寶鑑, p. 1092

99) 對譯東醫寶鑑, p. 1173

100) 上揭書, p. 117

101) 上揭書, p. 1173

102) 對譯東醫寶鑑, p. 1018

103) 對譯東醫寶鑑, p. 364

胸痛은 心痛, 胃脘痛, 胸痞및 結胸으로 나눠지며, 心痛은 風, 冷熱, 寒, 暑毒等의 外因과 內傷, 七情, 虛勞, 瘀血, 客忤와 尸注 等의 內因으로, 胃脘痛은 주로 內傷에 의해 發病하며, 胸痞는 內傷, 七情傷과 誤治로, 結胸은 傷寒病의 誤治, 瘀血과 熱入血室이 주원因이다. 鳥類는 火性을 띠므로 津液이 마르거나 七情의 鬱結로, 走類는 木氣가 盛하여 土氣를 抑鬱하여, 甲類는 氣鬱로, 魚類는 相火가 動함에 따라 胸痛이 發生한다. 精科는 精의 漏泄로 火를 制御하지 못하여, 氣科는 氣의 鬱滯로 나타나며 특히 마름모형의 많이 發病한다. 神科는 陰虛火動, 痰火와 七情의 鬱結로, 血科는 水火의 交濟가 圓滑하지 못해서 發病한다. 耳目口鼻에서는 코가 들리거나, 火性의 눈, 입술이 지저분한 경우와 山根이 높은 경우에 胸痛이 많으며, 얼굴 色은 赤色과 黃色에서 胸痛이 많이 나타나며, 얼굴 形態의 矛盾에서는 印堂이 鬱하거나 山根에 주름이 있는 경우가 胸痛이 많았다. 六經形 中에는 多氣多血한 陽明形과 太陰濕土한 太陰形에서 胸痛이 많았다. 女子는 性命의 根本이 가슴에 있고 用事하는 部位가 가슴이므로 胸痛이 잘 발생한다.

참고문헌

1.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서울, 芝山出版社, 1997.
2.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Ⅲ. 서울, 芝山出版社, 1997.
3.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서울, 芝山出版社, 1998.
4.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Ⅴ. 서울, 芝山出版社, 1998.
5.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Ⅵ. 서울 芝山出版社, 1998.
6.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Ⅶ. 서울, 芝山出版社, 1999.
7. 文濬典 外.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3.
8. 方廣編註.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93.
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4.
10. 申載鏞編著. 新增補辨證 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91.
11. 楊維傑編. 黃帝內經 素問.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中華民國70年.
12. 楊維傑編. 黃帝內經 靈樞.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中華民國70年.
13. 龔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14. 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15. 張機. 金匱要略. 欽定四庫全書 2卷引用,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6. 程國彭. 醫學心悟. 홍콩, 友聯出版社, 1961.
17. 朱宏. 國譯活人書. 서울, 반룡, 1999.
18. 周命新. 醫門寶鑑. 서울, 一中社, 1991.
19. 許浚. 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1999.
20. 白根其. 《黃帝內經》에 나타난 形象에 관한 考察. 暻園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9.
21. 李京燮. 虛血性心臟病의 診斷과 治療.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第8卷 第1號.
22. 趙漢震. 胸痛에 對한 東西醫學的 考察. 대전, 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 論文集 1998.